



고창군은 선운산도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유스호텔을 올해 10억원을 투입하여 새롭게 단장한다고 지난 18일 전했다.

선운산유스호텔 새단장

올해 10억원 투입 객실 개별난방 등 친환경 기능보강사업 추진

고창군은 선운산도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유스호텔을 올해 10억원을 투입하여 새롭게 단장한다고 지난 18일 전했다.

1999년에 완공한 유스호텔 본관 건물은 32개의 객실에 대강당, 세미나실, 회의실, 자가취사장, 야외공연장, 대식당을 갖추고 있어 청소년 캠프나 대학생 MT를 위한 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06년에 완공한 신관은 21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본관과 함께 310여명의 관광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 대규모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

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유스호텔은 올해 10억을 들인 기능보강사업으로 중앙난방식인 객실 난방을 개별난방으로 교체함으로써 연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오래된 창호와 벽체 등을 보강함은 물론 객실 화장실 확장과 객실문, 중간문을 설치하는 등 난방효율성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유스호텔은 시설보강뿐만 아니라 진정도 향상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1회 이상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위생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식당의 소독과 청결을 철저히 해 식중독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등 수련시설을 갖춘 고객이 안전한 가운데 최상의 서비스를 향유함으로써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고창의 명품 유스호텔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창군은 올해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군비 예산을 추가 확보해 나머지 시설을 보다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유스호텔이 고창을 대표하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 구암사

박한영 대종사 기념 전시회

24일~25일 순창군 구암사 화엄전에서

한국학의 스승이자 독립운동가이며 근대 불교교육의 선각자인 영호(映湖)당 박한영 대종사 기념 전시회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순창군 북흥면 구암사 화엄전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순창군과 구암사가 공동주최하며 구암사 보물 745호 월인석보 제15권 외 박한영 스님 관련 유품 30여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선수문경과

선시와좌구선월, 선시 송하문동자 등 스님이 직접 쓴 글씨나 엽서 관련 서적, 서화 등 평상시 볼 수 없었던 스님관련 유품이 전시되는 의미 있는 행사다.

군과 구암사는 대한제국의 사상가이며 교육자이자 항일운동에도 힘을 쏟은 조계종 초대 종정 박한영 대종사의 인식을 제고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김영란법 피해 최소화 대책회의 개최

음식비 5만원 선물 10만원 상향 조정 · 별도기준 마련 등 촉구 건의문 채택

남원시에서는 19일 시청회의실에서 축산관련단체를 초청하여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조승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남원축협, 남원시 축산단체협의회를 비롯한 6개 단체가 참여하여, 법시행에 따른 예상피해, 국내동향과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자들은 청렴도 향상

과 국가신임도 상승 등을 위해 청탁 금지법의 시행은 충분히 공감하나 청탁금지법에서 음식비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제한하게 될 경우, 한우 등 주요농축산물의 국내 소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주장하고, 남원지역 한우 농가 피해액은 약22억원으로 예상하며, 장기적으로는 한우산업 기반이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한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음식물비는 최소한 5만원, 선물비용은 최소한 1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 적용대상에서 피해우려 일부품목을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시는 축산관련 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피해대책 방안으로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와 온라인 판매 등으로 유통 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축산물 소비촉진을 시사회와 지역문과 축제와 연계한 홍보와 다각적인 유통·판매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맛있는 우리쌀 빵으로 건강챙기세요"

남원농기 '쌀의날' 홍보행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지난 18일 '쌀의날'을 맞이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인 주천하주마을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우리 쌀 빵 3종을 만들어서 관내 어린이집, 남원교육지청, 남원시청, 광한투를 방문하여 우리 쌀 빵의 이점을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다.

지난 18일 '쌀의 날'은 쌀 관세화를

계기로 쌀 산업에 대한 범국민 가치 확산과 쌀 소비촉진을 위해 지정됐다.

이날 홍보행사에 참여한 주천하주마을은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우리 쌀 연구회를 조직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어르신 소일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과 연계하여 주천하주마을에 우리밀·우리쌀 빵을 만들 수 있는 체험장을 조성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제이엔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순창 어른신배움교실 수강생 모집

순창군이 어르신들의 신체활동능력 향상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2016 하반기 어른신배움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하반기 어른신 배움교실은 만 60세 이상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과목은 컴퓨터교실, 치유요가교실, 서예 및 악기, 실버댄스스포츠, 노래교실, 장수요가, 장수춤 등이다.

무료로 실시되는 이번 어른신배움교실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순창군 노인복지관을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되며, 실제 교육 운영은 9월 19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어르신 배움교실에 대한 자세한 문의전화는 063-650-1534번으로 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오늘 읍지연습 실시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전시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함께해요 읍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라는 슬로건 아래 22일부터 나흘 간 2016 읍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읍지연습은 남원시, 남원경찰서, 군부대 등 총 460여명이 참여, 22일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도상연습, 현안과제 토의, 총무계획 숙지, 전시직제편성 훈련, 실제훈련 등을 중점 점검·훈련해 비상사태 시 신속한 대응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실시 예정이다.

도상연습에서는 정부·자치단체 기능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 생활안전에 관한 중앙통제 메시지·도 자체 메시지를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전시 현안과제 토의에선 전시 예산 편성 및 운용 계획 및 전시 파란민 수용 및 구호 대책을 논의한다.

실제훈련에서는 전시 초기 긴급 소요되는 병력을 실제 동원하는 한편, ▲폭탄 테러에 의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실제 훈련 ▲장사정포 공격 대비 민방공대피 훈련 ▲다중이용시설·아파트 등 위험시설 교육, 점검 훈련 ▲주민체험형 교육식 훈련 ▲사이버테러 대응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

한편, 남원시는 성공적인 읍지연습의 시행을 위해 집관관, 계시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읍 전통시장 노점상·도로 불법적치물 단속

순창군이 지난 21일부터 연말까지 순창읍 전통시장의 도로변 노점상과 불법적치물(차량포함)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전통시장내 인도와 도로변 등에 불법노상 적치물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군민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해 적치물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시장내 도로변 주차단속도 병행추진할 계획으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전확보를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로를 무단 점유해 노점을 하거나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적치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반복행위의 경우 강제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광명시 농산물 판매 협약

고창군과 광명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과 광명동굴을 통한 고창군 외인 등의 농특산물 판매를 주요 요지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일 광명동굴 외인레스토랑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박우정 군수와 양기대 광명시장, 고창군과 광명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광명시의 광명동굴은 103년 역사의 폐광산을 문화예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창조적인 동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국내 최초 참조경계 동굴관광지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협약식이 열린 외인동굴은 전국의 17개 자치단체가 외인 생산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기준 국산외인 판매량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